다산포럼

염재호

이념 대립 속 무시된 절차적 합리성

요즘 우리 사회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보수와 진보의 치열한 대결 속에 나타나는 절차적 합리성으로 보인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이념의 차이는 있어도 상대를 인정하는 관용이 전제된다.

이들 사회에서는 대립과 갈등이 있으면 합리적 절차에 의해 상대를 설득하고 문제를 풀어간다.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면 아무리 이념이 같은 집단이나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비난을 면치 못한다.

보수이건 진보이건 이념은 개인의 가치와 선호의 문제이다. 개인의 가치와 선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어느 사람이 빨간색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파란 색을 좋아한다고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이념의 선호에 매몰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하고 있다.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하다 보면 상대방의 전략과 전술에 빠져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초조감의 논리가 팽배해 있다. 결국 절차적 합리성이 무시되고 벌거벗은 투쟁의 논리만 남게 된다.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니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먹은 것이 무슨 그리 큰 죄인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명철한 사고를 인간이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왜 선악과로 인해 인간에게 죄가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가 의문이 들었다.

기독교에서 선악과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인간이 신처럼 선과 악을 절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오류이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 카인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판단하고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인류 죄악의 시초라고 본다.

오해와 편견과 살인과 전쟁은 결국 자신만이 선하고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는 독선에서 나온다. 이처럼 절대적 영역에 속하는 선과 악을 자신이 구분할 수 있다는 오만이 바로 우리 사회 죄악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비주류 경제학자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바 있는 허버트 사이몬은 합리성에는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이 있다고 했다. 내용적 합리성은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에 관련된 진실을 말한다.

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성은 절차적 정당성을 근거로 한 합리성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이 최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요한 문제해결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논리실증주의 대가인 칼 포퍼도 과학의 상대성을 주장한다. 과학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과학이지 언제나 절대적인 진리로 남게 되면 이것은 신앙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사회에서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서구사회에서 추구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포용의 정신이다.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의 대립에서 나타난 갈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념의 대립을 전제로 하여 사회적 논의 구조에서 절차적 합리성이 무시되고 있다. 오로지 우리 편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 기준만 있지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절차를 지키려는 노력은 없다.

오늘도 국회는 난장판이 되고, 야당은 거리집회에 나서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선거가 한번은 여당을 지지하고 다른 한번은 야당을 지지하는 것은 우리가 이념과 정책의 차이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선거의 판세는 여당이나 야당에 대한 감성적 판단이 대세를 이룬다. 이러한 평가의 밑바탕에는 절차적 합리성을 위배하는 정당에 대한 심판의 측면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영호남 한목소리 낸 경전선 복선전철화

영호남지역 8개 상공회의소가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65㎞)의 복선전철화를 2015년 이전에 조기 착수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광주·전남지역 현안에 대해 영호남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광주~순천 간 복선전철화 사업을 무기연기한 정부의 처사가 잘못됐음을 입증한 셈이다.

광주, 순천과 부산, 마산 등 영호남 8개 지역 상의는 지난 24일 경전선 광주~순천 간 복선전철화가 2015년 이전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80개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양 지역 상의의 건의문 채택은 광주~순천 간의 복선전철화가 영호남 경제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경전선 복선전철이 완료되면 광주~부산 철도이동 시간은 5시간 이상 단축돼 37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남해안 선벨트 활성화를 통한 남해안권 산업 및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이 객관적 타당성이 입증됐음에도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한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 감사원이 '경제성이 없는 사업'으로 지적해 중단한 울산~경주~포항 복선화사업 이른바 '형님 철도'를 부활시킨 것은 없는 경제성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것인가. 이는 형평성 문제를 떠나 국가의 미래가 달린 기간산업을 정권의 친불친에 따라 결정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정부는 영호남지역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광주~순천 간 복선전철화사업의 조기착공을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 경전선이 복선화하는 데 무려 36년이 걸린 '제 2의 호남선'이 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화물선 침몰사고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니

이틀 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해상에서 발생한 화물선 침몰사고는 승선 차량을 제대로 결박하지 않은 채 운항하다 선박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중심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경비정이 신속히 구조에 나서지 않았다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사고 선박은 화물차를 실은 후 차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체인으로 결박해야 하는 데도 바퀴에 고임목만 고정해 놓은 뒤 운항을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4~5m의 높은 파고와 초속 20m가 넘는 강풍 속을 운항하던 선박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배수구를 통해 바닷물이 유입됐고 차량이 순식간에 오른쪽으로 쏠려 배가 전복됐다는 것이다.

'대충' '적당히'가 부른 침몰사고라는 점에서 '안전 불감증'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악천후 속을 운항하면서 체인으로 차량을 결박하지 않은 것은 운항 수칙 기본조차 무시했다는 얘기다. 당시 사고 지점은 파랑주의보가 발효돼 최고 4.8m의 파고가 일만큼 최악의 상황이었다.

여기에다 이 화물선의 경우 악천후 속에도 운항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사고가 이미 예고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어떻게 4~5m의 높은 파고와 강풍 속에도 운항 통제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해경이 90분 간의 사투 끝에 승선한 15명을 모두 구조했다지만, 안전 불감증이 이 정도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연시 하는 잘못된 의식과 부실한 시스템이 사고를 낳고, 키우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익히 경험했듯이 선박사고는 자칫하면 크나큰 인명 피해를 부를 수 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안전 의식과 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원인이 드러난 만큼 관계당국에서는 엄히 사고 책임을 묻고,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기고

김지민

청렴 실천으로 국가 경쟁력 높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2007년부터 4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고객(민원인)이 공단의 업무에 대해 평가한 외부청렴도 점수는 9.12로, 이는 그 부분의 전체 평균인 8.62를 훨씬 웃도는 성과이기도 하다. 고객이 인정한 청렴한 기관이라는 데 공단의 직원으로서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청렴한 공단의 명성을 이어가고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역시 지난 한 해 동안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비록 그 예산규모는 크지 않지만 투명한 법인카드 사용을 위해 법인카드 사용 사전예고제와 사용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법인카드의 목적 외 사용금지로 직원들의 청렴의지를 환기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또 청렴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컴퓨터 화면보호기를 제작하고 청렴 UCC를 제작하여 전 공단에 배포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교육 생활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청렴활동 보다도 공단 직원으로서 청렴의 의미를 더욱 깊이 공감하게 했던 건 청렴관련 설문조사에서 장애인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전한 에피소드를 통해서였다.

지난 5월 스승의 날. 학생들이 스승의 날 선물이라며, 사탕 한 박스를 건넸다.

"선생님께서는 다른 선물은 드려도 받지 않으실 것 같아서…. 사탕은 두고두고 선생님과 함께 먹으면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수줍게 내민 학생들의 선물을 받으면서 이 이상 어떤 청렴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었다고 한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청렴의 기본이다. 부정한 방법이 통할 수 있다고 상대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패의 시작이다. 이것은 전체 공단의 청렴이미지로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서 부정부패가 발목을 잡는 나라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지난 10월 발표된 20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총 178개국 조사 대상국 중 39위에 해당하고 지수도 2년 연속 하락했다고 하니, G20 회원국으로서, 또 경제대국을 꿈꾸는 국가로서 부끄러운 수준이다.

청렴도 선진국인 싱가포르는 2010년에도 뉴질랜드, 덴마크와 더불어 공동으로 부패인식지수 1위를 차지했다. 부패방지를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로 보고 '청렴 싱가포르'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치인들의 솔선수범으로 국가 경쟁력 1위의 경제 대국 싱가포르를 만들어낸 것이다.

아주 작은 부정으로도 수년간 쌓아온 기관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국가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격은 청렴도 제고 없이 저절로 높여지지 않는다.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떠나 온 국민이 반부패와 청렴을 실천하여 국격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패 풍토와 결별하는데 동참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지원팀장〉

기고

김채홍

전남, 기업하기 좋다니깐요

전남이 전국에서 기업유치 서비스가 가장 좋은 곳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공장 신설이나 증설을 한 제조업체 2340개사를 통해 평가한 결과다. 이 결과는 실제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여서 객관성이 있고, 기업이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전남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이 투자협약식장에서 전남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투자유치 의지와 자상한 안내 그리고 지원에 매료되었다는 말을 자주하고 있다.

실례를 보면, 장흥 노력도항에서 제주 성산포항 간 1시간 대의 파격적인 페리호를 운항하게 된 배경도 기업대표가 장흥군 공무원들의 투자유치 열정과 정성에 반해 계획에도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다. 나주에 입주한 남양유업 대표가 임직원들에게 전남도에 가서 기업마인드를 배우라고 한 적도 있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투자할 곳을 가장 중요시 한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업인프라와 지원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의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미래 수익성과 안전성, 발전 잠재력이 있는 곳을 투자처로 결정한다.

전남은 수 년 전까지만해도 기업들의 관심도가 낮은 지역이었다. 수도권에서 멀고 산업인프라가 취약한데다 노조활동이 너무 강경하다는 것이다. 전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난 2004년부터 '기업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먼저 전남이 먼 곳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편리하게 접근토록 하기 위해 동서남북 그물망 고속도로를 만들고 고속철도와 무안국제공항을 개항했다. 기업이 손쉽게 제품 연구개발과 제조를 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연구원 등 다수의 센터와 연구소 등을 갖추고 전남에 입주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수하고 풍부한 산업자원도 발굴해 제공하고 있다. 식품 및 의약산업에 필요한 청정한 농수축산물과 해조류 등 수산자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일사량과 경제성 있는 바람, 해양여건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최적지로 꼽힌다. 최근 식품 및 의약업체와 태양광 및 해상풍력발전 기업들이 전남으로 몰려오는 이유가 산업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인프라 외에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만들고 산학연 활성화와 산업평화상을 제정하는 등 안정적 노사문화 정착 노력으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남도에 투자한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지원센터와 공동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해서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기업사랑운동도 펼치고 있다.

'전남이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이란 평가를 받은 것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인들의 이목이 전남에 집중되고 있다. 전남에서 세계 일류기업이 탄생하고 전남이 가장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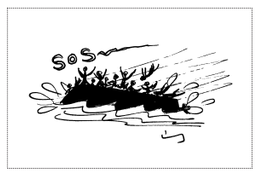
〈전남도 기업유치과장〉

無等鼓

3009함

건물 20층 규모, 800개의 객실을 갖춘 호화 유람선에서 연말파티가 한창일 무렵. 바다의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거대한 파도는 아무런 소리도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승객 모두가 샴페인 잔을 들어 다가오는 새해를 축하하는 순간, 엄청난 힘으로 몰아치는 파도에 배는 순식간에 뒤집히고 만다. 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까지 발생해 아수라장이 된 배는 서서히 깊은 바다로 가라앉는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물이 들어오지 않은 곳에 옹기 종기 모여 구조를 기다린다. 이때, 프로 도박사 존 딜런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탈출구를 찾아 나선다. 이상은 미국 블록버스터 재난영화 '포세이돈'의 일부분이다.



포세이돈의 줄거리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지난 26일 신안 만재도 해상에서 벌어진 화물선 구출작전은 한 편의 영화를 방불케 했다.

가거도에서 승객과 선원 15명, 화물차 등을 싣고 목포로 향하던 화물선은 적재된 차량이 한쪽으로 기우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매서운 칼바람과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렁이는 겨울바다 한가운데로 서서히 잠겨가는 배 밑바닥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는 심정이란 '절망' 그 자체였을 것이다. 이미 몇몇은 바다 속으로 뛰어든 상태였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다. '구세주'같은 최첨단 목포해경 3009함이 화물선 선장의 무선 구조요청을 받고 쏜살같이 달려왔다. 먼저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사람들을 구한 경비함은 배 밑바닥에서 생과 사의 마지막 갈림길에 있던 이들을 구해냈다. 경비함은 가까이 다가가면 파도가 일렁일까 봐 소형 보트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출하는 세심함도 보였다.

이번 목포해경 3009함의 활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립하는 군경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는 점에서 백 번 박수를 보내도 아깝지 않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정비업소 차량 수리비 '맘대로' 운전자만 골탕

얼마 전 아내한테 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차량이 이상한 소리를 내다가 도로에서 멈춰 버렸다는 내용이었다.

곧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해 가까운 카센터로 끌고 갔더니 정비사 말이 엔진오일을 갈지 않아 엔진을 바꿔야 한다며 공임비를 포함해 100만 원이 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평소 카센터를 이용하면서 바가지를 쓰는 느낌이 들어 다른 카센터에 가서 문의해보니 그쪽에서는 130만 원이 든다고 했다.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차를 또 견인하려면 돈이 들것 같아 그 카센터 정비사에게 "좀전에 카센터에서는 100만 원이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더니 잠시 후 100만 원에 해주겠다고 했다.

5분 만에 30만 원이 깎인 것이다. 누구나 다 경험해본 바겠지만 대부분의 카센터에서는 정비 내역서 없이 수리한 다음에 돈 내라고 하는 그야말로 카센터 주인 맘대로 값을 부르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과 불신이 크다. 정비업소는 양심껏 차량 정비를 해주길 바란다.

▲박준용·목포시 옥암동

과도한 비타민 복용 되레 건강 해쳐 자제해야

웰빙 바람이 불어서인지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에선 각종 비타민제 선전이 열기를 더한다. 언젠가 한 통계를 보니 비타민 A, B, D, E 등 각 종류의 비타민제는 물론 칼슘이나 클로렐라에 이르기까지 많게는 하루에 10종류 이상의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이 같은 이유는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기보다 앉아서 비타민만으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비타민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과 같은 칼로리원과 달리 비타민은 1일 권장량만 채우면 충분하고 오히려 과도한 복용은 두통, 위장장애, 쇼크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건강유지비결은 운동이다. 식사 후 걷기, 줄넘기 등과 같은 가벼운 운동은 비타민보다도 좋은 건강 유지 방법이다.

게으름 피우며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비타민제 열풍이 건강에 도리어 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 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자신의 건강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신재민·목포시 수강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